

전이지대로서의 섬진강변 지역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홍 미 주**

- I. 서론
- II. 전이지대로서의 섬진강변 지역의 방언적 특징
- III. 앞으로의 연구 방향 및 과제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섬진강변 지역의 전이지대로서의 방언적 특징을 살피고, 섬진강변 지역 방언의 연구에 있어 앞으로의 연구 과제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섬진강변 지역의 방언에 대한 논의 중 전이지대로서의 방언적 특징을 다룬 연구 성과들을 살피고, 향후 섬진강변 지역 방언 연구에서 필요한 연구 주제 및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섬진강변 지역의 언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 해당 지역의 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그러나 방

* 본고는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이 주최한 ‘영호남의 대화’ 하계 워크숍(2018.7.26., 도동서원)에서 발표한 것을 참석한 여러 선생님들의 질문과 제언을 참고하여 깊고 다듬은 것이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 mibong78@hanmail.net

언적 특질을 규명하는 언어 자체에 초점을 둔 논의가 많아,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나 그 화자가 공유하고 있는 언어문화적 요소들과 관련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섬진강변 지역과 관련된 앞으로의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적극 수용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간적 흐름에 따른 언어변화의 측면에서, 해당 지역 방언의 변화 양상 및 기제를 포착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섬진강변 지역 화자들의 언어태도를 파악하고, 이를 언어 사용 및 언어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민의 언어 사용과 태도 및 평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섬진강변 지역 특유의 언어 및 언어문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주제어

섬진강, 섬진강변 지역, 전이지대, 하동 방언, 광양 방언, 구례 방언

I. 서론

섬진강은 5대강 유역의 하나로, 한반도 남해안 중서부에 위치하는 강이다. 섬진강은 진안군의 팔공산에서 발원 후 구례를 지나 경남 하동까지 80리 길을 흐르는데 이곳부터 비로소 섬진강이라고 부른다. 하동군 화개면에서 전남과 경남의 경계를 이루면서 광양시를 지나고 광양만에 이르러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광양시 1999: 22).

이와 같이 섬진강은 행정적으로는 전남과 경남을 구분짓는 경계이고, 방언 구획상으로는 전남방언과 경남방언을 구획하는 경계가 된다. 섬진강이 행정적, 방언구획상 구분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 섬진강변 좌우 지역들은 예부터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온 곳이다. 육상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했던 과거에는 섬진강을 좌우로 전남과 경남의 인근 주민들의 교류가 활발했고 시장권과 통혼권 등 생활권을 같이해 왔다. 섬진강변의 지역은 섬진강이라는 지리적 장애물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생활권 및 경제권으로 묶여 있었을 만큼 접촉이 활발했던 곳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섬진강변은 동남방언과 서남방언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의 전이지대 언어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국토 최남단에 위치하여 중앙어의 개신파가 늦게 도달하여, 고형을 유지하고 있고, 특이한 방언형이 실현되는 지역이기도 하다(위평량 2005:2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섬진강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전이지대로서의 방언적 특징을 다룬 연구성과들을 살펴보고, 섬진강변 지역이 전이지대로서 어떠한 방언적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섬진강변 지역의 방언 연구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앞으로의 연구 과제 및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II. 전이지대로서의 섬진강변 지역의 방언적 특징

1. 선행 연구 개관

섬진강은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전북 진안에서 발원하여 여러 지역을 거쳐 구례에 이르고, 여기서부터 경남 하동까지 80리 길을 흘러 바다와 만난다.



그림 1> 섬진강 유역의 행정구역도(광양시 1999: 35)



그림 2> 섬진강 유역 군 단위 분포도(위평량 2005: 29)

지도에서 보듯이, 섬진강 좌우로 경남의 하동, 전남의 구례, 광양이 있다. 이들 지역은 예로부터 생활권을 같이 해 온 곳으로, 전남과 경남의 문화적, 언어적 특징들이 교차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전남 방언과 경남방언이 교차되는 전이지대로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전이 지역(transitional area)은 혹은 완충 지대(buffer zone)는 둘 이상의 개신형이 침투하는 지역으로서 상이한 규칙들이 공존하는 지대를 말한다. 전

이 지역에서 두 방언 요소의 접촉 현상은 두 요소가 병존하는 병존 방언의 유형과 두 요소가 융합하여 제3의 요소로 나타나는 융합 방언 유형, 병존 방언과 융합 방언의 단순한 결합으로 단일한 방언에서 병존적 요소와 융합적 요소가 함께 발생하는 혼합 방언(scrambled lects) 등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방언연구회 2001:295-296). 전이지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섬진강변 지역이 어떠한 방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남 구례, 광양, 경남 하동의 방언을 살펴본 논의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음운, 형태통사, 어휘적 측면으로 나누어 전이지대의 방언적 특징을 논의할 것이다.

강희숙(2017)은 섬진강 유역 방언이 전남방언과 경남방언의 전이 지역으로서의 특징을 보인다는 가정 아래 이 지역의 방언 현상을 기술하려는 시도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하였다. 그 하나는 음운과 어휘, 문법 등 다양한 문법 층위에 걸친 분석을 통한 등어 지대의 설정에 주된 관심을 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음운론의 차원에서 음운 목록을 대비 또는 확인하는 데 관심을 둔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서주열(1980), 위평량(2000, 2005) 등이,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김재문(1984), 김봉국(2011) 등이 있다(강희숙 2017: 52). 여기에 더해, 개별 지역의 방언을 대상으로 전이지대의 방언적 특징을 살펴보는 논의로 김정대(2012), 서상준(1983), 기세관(2004)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강희숙(2017)은 전남 동부 지역에서 주로 쓰이는 ‘-센’형 호칭이 전이지역에도 실현되고 있음을 논의한 것이다.

먼저 등어지대 설정에 초점을 둔 논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서주열(1980)에서는 전남방언과 경남방언의 접촉 지대의 방언을 음운과 어휘, 통사 차원에서 고찰한 결과, 전남의 광양군과 구례군, 여천군, 경남의 하동군과 남해군을 등어지대로 설정하였다. 이 지대에서는 전남의 서부나 경남의 동부와는 달리 ‘ㄱ’과 ‘ㄴ’이 변별되며, 경남의 성조와 전남의 음장이 동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섬진강 유역의 전이지역에서 두 가지 음운론적 특성이 공통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평량(2000)은 전남과 경남의 접경 지역 22개 군(시)· 223개 면(읍) 단위의 방언 분포를 지도로 제시하고, 각 어휘별 분포 및 변천 과정 등의 특징을 음운, 문법 형태, 어휘별로 살펴, 전남 방언과 경남방언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제반 방언적 특질을 공유하고 있는 등어지대를 설정하고 있음을 논의한 것이다. 이후 위평량(2005)에서는 위평량(2000)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남과 경남의 접경 지역의 방언 분포 유형을 경남형이 우세한 경우, 전남형이 우세한 경우, 새로운 제3 유형이 분포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전이지대의 음운목록을 확인하는 논의를 살펴보면, 김재문(1984)은 섬진강 좌우 지역을 대상으로 모음목록을 대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김봉국(2011)은 전남방언과 경남방언의 접경 지대인 경남 하동, 전남 광양, 구례 지역의 음운 목록을 살펴본 것으로, 모음체계, 자음체계, 운소체계상 세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전이지역에 속하는 개별 지역의 방언을 대상으로 음운, 형태, 통사, 어휘적 측면에서 방언적 특징을 논한 연구로 광양 방언을 대상으로 한 서상준(1983), 기세관(2004) 등이 있다. 서상준(1983)은 광양을 대상으로 광양방언이 하동방언과 더불어 동남방언과 서남방언의 전이 지역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동부 지역(진월, 진상, 다압면)의 주민들이 강 건너 동남방언 지역의 하동과 예부터 생활권을 같이해 옴으로써 방언 간의 교섭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였다. 기세관(2004)은 광양 방언의 여러 가지 음운론적·형태론적 특징들을 살펴보고, 광양 방언이 동남 방언과 서남 방언의 중간적 특성, 곧 전이지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하동 방언을 대상으로 한 김정대(2012)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언어가 갖는 특성이 어떠한지를 개신의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이다.

강희숙(2017)은 전남의 동부 지역에서 남성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는 ‘-썩’을 대상으로, 하동, 구례, 광양에서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 논의이다. ‘-썩’형 호칭이 전남의 동부지역어에서 발생하여 방언접촉에 의해 하동이나 함

양과 같은 경남의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센’형 호칭이 섬진강 유역 전이지역 방언의 특성으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것들 중 전이지대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방언적 요소를 중심으로, 섬진강변 지역의 전이지대로서의 방언적 특징을 음운, 형태통사, 어휘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음운적 측면

1) 자음체계

김봉국(2011)은 전남방언과 경남방언의 접경지대인 경남 하동, 전남 광양, 구례 지역의 음운 목록을 밝힌 연구이다. 김봉국(2011)에 따르면 이 지역의 자음은 아래와 같이 총 19개로, 세 지역 모두 ‘ㅅ:ㅆ’의 대립을 보인다. 이는 경남 동부의 일부 지역에서 ‘ㅅ’과 ‘ㅆ’이 변별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日, 斗,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 𠂔, 𠂔, 𠂔, 𠂔

광양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세관(2004)도 광양 지역어는 19개 자음이 실현된다고 하여, 자음 목록에서는 연구자간에 큰 이견이 없다.

2) 모임체계

김재문(1984)은 섬진강에 인접한 전남과 경남의 지역을 대상으로 모음목록을 대비적으로 확인한 연구로, 전남 동부와 서부 경남 지역 모두 ‘-ㅓ’, ‘-ㅕ’의 대립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주열(1981)에서도 등어지대 방언인 광양, 하동이 ‘-ㅓ’, ‘-ㅕ’의 대립을 보인다고 하였다.

김봉국(2011) 또한 경남 하동, 전남 광양, 구례 세 지역 모두 ‘一: 1’, ‘一: 1’의 대립이 있다고 하였다. 김봉국(2011)에서 제시한 경남 하동, 전남 광

양, 구례 세 지역의 모음 목록은 다음과 같다.

지역 \ 모음	모음 목록
광양	ㅣ, ㅔ, ㅞ, ㅟ[ㅓ], ㅠ[ㅓ], ㅡ, ㅣ, ㅑ, ㅓ, ㅕ
구례	ㅣ, ㅔ, ㅞ, ㅟ[ㅓ], ㅠ[ㅓ], ㅡ, ㅣ, ㅑ, ㅓ, ㅕ
하동	ㅣ, ㅔ, ㅞ, ㅡ, ㅣ, ㅑ, ㅓ, ㅕ

그림 3> 광양, 구례, 하동의 모음목록(김봉국 2011: 12)

김봉국(2011)에 따르면 세 지역 모두 ‘ㅡ:ㅣ’, ‘ㅞ:ㅟ’의 대립이 있지만, 경남 하동은 전남 광양과 구례에 비하여 ‘ㅞ’와 ‘ㅟ’의 음성적인 간극이 좀 더 좁다. 그리고 ‘ㅑ:ㅓ’의 원순성 대립과 관련하여 경남 하동은 원순성의 대립이 없지만, 전남 광양과 구례는 원순성의 대립이 있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광양과 구례가 원순성의 대립이 있기는 하지만 질적, 양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구례는 조사한 모든 단어가 모두 원순성을 보이며, 원순성 또한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광양은 조사한 단어 중 일부는 원순성을 상실했거나 발화 상황에 따라 원순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원순성 또한 구례에 비해서 약한 특징을 갖고 있다(김봉국 2011: 23-24).

지역 \ 모음		광양	구례	하동
대립	ㅡ:ㅣ	○	○	○
	ㅞ:ㅟ	○	○	○
원순성	ㅑ	○(弱)	○(强)	×
	ㅓ	○(弱)	○(强)	×

그림 4> 광양, 구례, 하동의 모음 대립(김봉국 2011: 16)

‘ㅡ:ㅓ’의 대립이 있다고 본 김봉국(2011)과 달리, 김정대(2012)는 하동 방언에서 ‘ㅡ:ㅓ’의 대립이 없다고 하였다. 하동 지역어는 ‘ㅘ:ㅙ’의 대립은 아주 분명한 반면에, ‘ㅡ:ㅓ’의 대립은 음성적으로는 존재하나 음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동 지역어의 7단모음 체계(아, 에, 애, 이, 으/어, 우, 오)는 전형적인 경상도 방언의 6(7)단모음 체계를 수용하면서도 섬진강변 왼쪽으로부터 전라도적인 10단모음 체계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결과로 보았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기세관(2004)은 광양에서 ‘ㅘ’와 ‘ㅙ’가 변별된다고 하였다. 이는 서부전남 방언에서 /e/와 /ɛ/가 음소적 가치를 잃고 /E/로 합류된 것과 대조적인 것이다.

서열 \ 계열		전 설		후 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1	2	3	4
고설	1	i	ɔ	i	u
중설	2	e	ɔ	ə	o
저설	3	ɛ		a	

그림 5> 광양 방언의 모음 체계(기세관 2004:11)

그리고 광양 방언에서 ‘ㅘ’와 ‘ㅙ’도 단모음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하였다.

서열 \ 계열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1	2	3	4
고설	1	i	ɔ	i	u
중설	2	E	ɔ	ə	o
저설	3	a			

<노년층>

서열 \ 계열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1	2	3	4
고설	1	i		i	u
중설	2	E		ə	o
저설	3	a			

<젊은층>

그림 6> 서부전남 방언의 모음체계(기세관 2004:10)

기세관(2004)은 서부전남 방언과 광양 방언의 모음 체계를 대조적으로 살펴, 서부전남 방언의 모음 음소는 역사적으로 10모음 체계에서 9모음 체계를 거쳐 7모음 체계로 변화하였지만 광양 방언에서는 10모음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광양 방언이 서부전남 방언에 비하여 변화에 있어서 보다 보수적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광양과 구례의 경우는 ‘ㄱ: ㅈ, ㅊ: ㅊ’가 대립되며, ‘ㄱ, ㅊ’가 단모음으로 존재한다는 데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하동의 경우에는 ‘ㄱ: ㅈ’가 대립된다는 것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지만, ‘ㅊ: ㅊ’의 대립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¹⁾

3) 운소

김봉국(2011)에서 전남 구례는 음장에 의한 대립만 존재하는 음장 방언이지만,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은 성조에 의한 대립과 음장에 의한 대립이 모두 존재하는 성조음장 혼효 방언이라고 하였다. 광양과 하동이 접촉 지역의 방언적 특징을 가지며, 특히 광양은 전남방언이면서 성조 내지 악센트를 가지고 있다.

세 지역에서 ‘말+이’의 실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광양, 구례, 하동 지역어의 운소 대립(김봉국 2011: 19-21)

운소 지역	단음	장음
구례	말이(馬)/말이(斗)	말:이(語)
광양	말이[HL](馬)/말이[LL](斗)	말:이[LL](語)
하동	말이[HL](馬)/말이[LL](斗)/말이[LL](語)	말:이[LL](語)

1) 하동 지역의 ‘ㅊ: ㅊ’ 대립과 관련한 논의 중 김재문(1977), 서주열(1981), 박정수(1999) 등은 ‘ㅊ: ㅊ’가 대립된다고 보는 반면, 김택구(1991), 최명옥(1992/1998), 김정대(2000) 등은 대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김봉국 2011: 7에서 재인용).

광양과 하동은 ‘고조(H):저조(L)’에 의한 성조 대립(말이[HL](馬)/말이[LL](斗))과 ‘단음:장음’에 의한 음장(말이[LL](斗)/말:이[LL](語)) 대립이 나타난다. 그런데 단음에 의한 ‘고조:저조’의 대립을 보이는 최소대립쌍은 있지만 장음에 의한 ‘고조:저조’의 대립을 보이는 최소대립쌍은 없으며, ‘고조:장음’의 대립을 보이는 최소대립쌍(말이[HL](馬)/말:이[LL](語))이 있다.

하동에서 ‘말이(語)’는 장음과 단음 모두 실현되는데, 이는 하동 지역이 성조 방언과 음장 방언의 전이지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인접한 성조 방언에서는 ‘말이(語)’의 성조형이 [LH]이며, 음장 방언에서는 ‘말:이’로 실현되는데, 단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성조 방언의 영향일 것이고, 장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음장 방언의 영향일 것이다(김봉국 2011:22).

4) 음운 현상

기세관(2004)은 광양 방언에서 실현되는 음운 현상에 대한 논의로, 여러 음운 현상 중 전이지대의 특질을 잘 보여주는 현상으로 어두경음화, ㅅ 불규칙 용언의 활용, ㄹ 받침 체언의 곡용, 마찰음화를 들 수 있다.

먼저 어두경음화의 경우, 기세관(2004)에 의하면 광양 방언에서 어두 경음화가 강하게 나타나며 한자어에서보다 고유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서남 방언보다 동남 방언에서 어두 경음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광양 방언은 어두경음화에 있어 서남 방언보다 동남 방언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기세관 2004: 15-17).

다음으로 ㅅ 불규칙 용언의 활용의 경우, 공통어나 동남 방언에서 ‘ㅅ’을 말음으로 가진 용언 가운데 ‘ㅅ’ 불규칙 용언은 서남 방언에서는 ‘ㅅ’을 유지하는 규칙성을 보인다. 광양 방언에서 ‘ㅅ’ 불규칙 용언은 대체로 규칙성을 보이나 한 어휘가 동시에 규칙형과 불규칙형의 두 교체형으로 실현되는 것도 있다.²⁾ 이는 광양 방언이 동남 방언과 서남 방언의 전이지대적 특성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기세관 2004: 39).

2) ‘짓-+ -어: 짓어~지:, 짓-+ -었다: 짓었다~지:따’가 그 예이다.

그리고 ㄹ 받침 체언의 곡용의 경우, 공통어에서 ‘ㄹ’받침을 가진 어휘가 광양 방언에서는 ‘ㄷ’ 받침을 가지는 것으로 실현된다.³⁾ 이는 동남 방언을 진원지로 하는 ‘ㄹ→ㄷ’이라는 개신파가 광양까지 밀려왔음을 의미한다. 이 개신파가 동남방언의 접경지인 광양에까지는 도달하였지만 다른 서남 방언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였다(기세관 2004:41).

마지막으로 마찰음화 현상의 경우, 서부전남 방언의 마찰음화, 곧 ‘ㅌ>ㅈ>ㅅ’ 또는 ‘ㅈ>ㅅ’는 여타의 서부전남 방언에서보다 광양 방언에서 실현 정도가 낮다. 마찰음화 현상은 전남의 동부에서 서부로 갈수록 정도가 심하므로 그 개신파가 서부를 진원지로 하여 동부로 퍼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기갑 1884: 119-123, 기세관 2004:48에서 재인용).

3. 형태·통사적 측면

김정대(2012)에서는 하동 방언의 해라체 의문법 어미, 목적격 조사의 실현을 살피고, 하동방언이 경남방언과 전남방언의 교차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먼저 해라체 의문법 어미는 하동에서 ‘어디 가네?, 집에 가냐?, 머이고?, 생일이냐?’ 등으로 실현된다. 이 중 ‘-네?’는 하동 등 일부 서부 지역(하동, 진주, 사천, 남해)을 중심으로 하여 독특하게 하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고?’의 실현을 통해 하동 방언이 경남 방언권의 영향 아래에 있고, ‘-냐?’의 실현을 통해 하동 방언이 전라도 방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문법 어미의 실현을 바탕으로 김정대(2012)는 하동 지역어가 그 지역어 특유의 어형을 보존하고 있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경남 방언 권역에 들기도 하고, 인근 전라도 방언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등, 접경 지역의 언어가 보여줄 수 있는 종합적인 내용을 해라체 의문법 어미가 보여준다고 하였다(김정대 2012:46-47).

3) 광양방언에서 공통어의 ‘흙, 찰흙, 답’의 어간은 ‘흙, 찰흙, 답’이다.

하동 방언에서는 ‘물을(물+을)’, ‘(돼지)로(돼지+를)’와 같이 목적격 조사로 ‘을’과 ‘로’가 실현된다. 하동 지역어는 유음 뒤에서는 표준어나 전라도 방언의 영향을 받아 ‘을’이 사용되고, 모음 뒤에서는 다수의 경남 방언형과 동일한 ‘로’가 사용된다. 이와 같이 하동지역어에 목적격 조사가 보편적인 경남 방언형과는 달리 쓰이는 것은 본래 하동 지역어는 여느 경남 방언처럼 둘다가 ‘로’였는데, 점차 표준어나 섬진강 너머 인근 지역어의 영향으로 ‘을’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정대 2012:48-50).

4. 어휘적 측면

위평량(2005)은 전이지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어휘의 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몇 개의 예를 들면 다음 표와 같다. 접경지의 어휘 형태를 보면 전남 방언과 경남방언의 어휘 형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형태가 접경지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표 18> 접경지역의 어휘형태(위평량 2005)

단어	전남방언형	접경지	경남방언형
갈퀴	갈꾸	갈퀴리, 깔퀴리, 까퀴리	까꾸리
또아리	또가리	또바리, 따바리, 때바리	따뱅이
-버리다	부리다	뿌리다	빼따

김정대(2012:50-53)에 따르면, 하동은 경남 지역이면서도 ‘하고’가 아닌 ‘히고’ 실현된다. ‘히고’는 전라방언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하동이 섬진강 너머 전남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포괄동사 ‘하-’와 관련이 있는 ‘-한테’가 하동 지역에서는 ‘헌테’로 실현된다. 하동에 인접한 전라도에서는 대부분 ‘보고’를 쓰고 있고, 광양의 일부(‘헌테’)와 구례(‘헌티’)에서만 ‘하-’계를 쓴다. 이로 보아, 전남 지역어에서도 애초 ‘헌테/티’를 썼고 그 영향을 하동 지역어에 주고 난 뒤에, 전남 지역어는 ‘헌테/티’보다는 ‘보고’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강희숙(2017)은 하동, 구례, 광양을 조사지점으로 하여, ‘-샌’형 호칭의 실현 양상을 살펴본 논의이다. ‘-샌’은 서남방언, 특히 전남의 동부 지역어에서 남성에 대한 호칭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70대 이상의 노년층 세대에서 그 잔영이 남아 있는 호칭이다. ‘성(姓) + -샌’의 구조로 이루어진 ‘-샌’형 호칭은 이전에는 단순히 이름으로 불리던 남성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나 비슷한 연배의 남성들끼리 격의 없이 사용하면서 친밀감을 드러내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호칭은 전남 방언에서만 고립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섬진강 유역의 전이 지역에서도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샌’형 호칭이 전남의 동부 지역어에서 발생하여 방언 접촉에 의해 하동이나 함양과 같은 경남의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샌’형 호칭이 섬진강 유역 전이 지역 방언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였다.

III. 앞으로의 연구 방향 및 과제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간의 연구는 지역간 대비를 통해 해당 방언의 음운목록 및 음운체계를 논의하는 연구가 많았다. 그리고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 방언의 음운, 형태통사, 어휘, 의미적 측면에서 방언적 특질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하동, 구례, 광양 등의 섬진강변 지역이 전남 방언과 경남 방언이 교차되는 지점으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영향을 준 방언보다 더 보수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섬진강변 지역의 언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그러나

방언적 특질을 규명하는 언어 자체에 초점을 둔 논의가 많아,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나 그 화자가 공유하고 있는 언어문화적 요소들과 관련된 논의가 거의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또한 언어변화의 측면에서 이 지역의 언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없어 시간적 흐름에 따른 이 지역 언어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지역과 관련된 앞으로의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적극 수용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1. 시간적 흐름에 따른 언어변화의 기술

경남 하동, 전남 광양과 구례가 전이지대로서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에도 그러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논의가 필요하다. 10여 년 전의 연구인 위평량(2005)에서 이미 시간이 갈수록 광양이나 구례는 서남방언에, 하동은 경남 동부방언에 귀속되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경향은 육상교통이 발달하게 되어 구례와 광양은 전남의 대도시와, 하동은 경남 동부 대도시와 교류가 빈번해졌고, 정치·문화적 이유로 섬진강을 경계로 교류가 단절되어 가기 때문이다(위평량 2005:43-44). 따라서 현재 섬진강변 지역이 전이지대로서의 방언적 특질을 보이고 있는지, 과거 연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그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⁴⁾

아울러 해당 방언형이 어떻게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강희숙(2017)에서 다루어진 ‘-샌’형 호칭의 경우, 전남 동부에서 주로 실현되던 ‘-샌’형 호칭이 어떻게 하동 지역에 도입되었고,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접경지역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방언형이 어떻게 채택되고 확산되는지

4) 아울러 섬진강 좌우의 전남 지역과 경남 지역이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정치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등의 언어변화의 과정 및 동인을 파악할 수 있다.

2. 화자들의 언어 태도 파악

지역에서 실현되는 방언형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화자들의 언어태도⁵⁾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 언어공동체의 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태도는 지역 방언에 대한 평가, 관련을 맺고 있는 상대 지역 방언에 대한 평가, 해당 방언의 양상과 쓰임에 대한 화자들의 내재적 지식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삼전강변 지역은 전남과 경남의 문화적·언어적 교차지점이어서 공통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도 하지만 전남과 경남 화자들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욕구도 있을 것이다. 경남과 전남 지역의 화자들이 각각 자신이 경남과 전남에 속함을 어떻게 언어적으로 드러내는지와 관련된 논의도 할 수 있다. 이는 언어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관련되는 상대 지역과의 공통점이나 차별성을 언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⁶⁾

5) 언어 태도(language attitude)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Fasold(1984:148)는 언어 태도를 언어 그 자체에 대한 태도, 특정 언어 또는 방언 사용자에 대한 태도, 언어에 관한 모든 행위(언어관리, 언어계획)에 대한 태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양명희 2007:108에서 재인용). Ryan, Ellen Bouchard, et al.(1982:6-7)는 그동안 언어 태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었지만 평가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반응이라는 개념으로 태도의 정의가 한정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신념(belief)과 행동(behavior)이라는 개념이 언어 태도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언어태도를 다른 언어 변종이나 다른 화자를 향한 평가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반응으로, 인식 가능하거나 행동적인 지표로 정의하였다. 김덕호(2014:4)는 언어의식과 언어태도를 구분하여, 언어 의식은 내적 사고 작용으로 형성된 인지의 정도, 언어 태도는 내적 사고 작용으로 형성된 인지에 따른 구체적인 반응 및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6) 왕한석(2010: 74)은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맥락 속에서 우선적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중요한 사회언어학적(즉,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적) 연구 주제로 한국인의 특징적인 언어가치관 및 태도(speech value and attitude)에 대한 연구를 들었다. 즉 한국 언어공동체의 성원들이 일반적인

이와 같은 언어태도에 대한 논의는 이 지역 언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이 지역 화자들 사이에서 실현되는 다양한 언어 사용의 기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질적 연구 방법의 활용

언어변화의 동인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각 지역의 언어에 대한 지역민의 평가 및 판단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의 방언형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화자가 사용하는 방언에 화자의 지식이 무엇인지, 어떤 평가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동안의 방언 연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소수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방언적 특질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는 언어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화자들간의 언어사용과 화자들의 방언에 대한 평가 및 내재적 지식을 다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한 언어공동체의 언어를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민족지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⁷⁾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은 사회언어학 연구 분야의

로 가지는 말과 의사소통에 대한 문화적 가치관 및 관념, 생각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언어공동체마다 필요하지만 특히 섬진강변과 같이 사회문화적으로 교차되는 지역에서는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7)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의 개념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한 소개는 Saville-Troike, Muriel (2003), 왕한석(201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중 왕한석(2010)에서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의 정향과 앞으로 한국사회에 있어 어떠한 주제가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연구가 될 수 있는지 논의한 것이다. 의사소통 민족지학은 흔히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언어사용’(language use in a social context)에 대한 연구, 또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언어학’(socially constituted linguistics)으로 정의된다(왕한석 2010:65).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언어학은 언어의 내적 구조만을 탐구하려는 소위 자율언어학(autonomous linguistics)에 대한 가장 진지한 대안적 패러다임을 생성·발달시켜온 연구 분야이다. (Chomsky 언어학의 핵심 질문인) 언어(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인지적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만으로는, 우리는 언어의 세계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만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가

하나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왜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생활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를 함께 함으로써, 비로소 언어의 세계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그리고 보다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왕한석 2010:75)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한 언어공동체를 대상으로 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한 특색이 있으며,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 사회적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탐색을 통해 언어 및 언어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왕한석(2010)은 한국어 또는 한국 사회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 언어공동체의 의사소통체계’를 또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의 다면적인 관계’를 전면적이든 또는 부분적이든 기술, 분석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러한 연구의 방법론으로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또는 민족지적 현지조사 방법(ethnographic field work method)을 보다 선호하는 특색을 지닐 것으로 보았다(왕한석 2010:73). 이러한 연구 방법은 순수방언학적 논의를 넘어, 해당 지역의 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소수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방언형을 관찰하거나 수집하는 연구 방법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다면적인 사용과 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운용 기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비교적 긴 기간에 걸친 참여관찰과 다양한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사례연구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해 화자들간의 언어 사용과 대화 전략 등을 파악하고, 여러 화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언어공동체의 언어 및 언어 문화를 규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왜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생활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를 함께 함으로써, 비로소 언어의 세계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그리고 보다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왕한석 2010:75).

4. 섬진강변 지역 특유의 언어 및 언어문화에 대한 기술

정우락(2014)은 강이 ‘경계’와 ‘소통’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으로, 경계는 ‘경쟁’, 소통은 ‘협동’을 발생시켜, 둘 이상의 문화가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보다 높은 차원의 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강의 특성을 바탕으로 낙동강 연안지역의 문화가 문화적 접경론에 입각한 강안학적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정우락 2014: 209).

접경 지역은 두 가지 이상의 요소들이 교차하고 융합하는 지점이므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그 지역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남과 경남의 문화 및 언어가 교차되는 섬진강변 또한 특유의 문화와 언어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이러한 이 지역 특유의 문화와 언어를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우락(2014)의 강안학적 관점을 적극 수용한다면 섬진강변 지역에서도 섬진강 좌우가 교차되고 융합되어 새로운 언어 및 언어문화가 생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교차 및 융합 지점으로서의 섬진강변 지역의 언어 및 언어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섬진강변 유역의 문화적 교섭과 언어적 교섭이 어떻게 연관되어 실현되는가하는 문제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섬진강변 지역이 단순히 전남과 경남 방언이 교차되는 지점이 아니라, 두 지역이 교섭하여 전남과 경남과는 다른 독자적인 언어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논의가 위평량(2005)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섬진강변 지역의 ‘파’의 방언형과 제3공유형 분포와 관련된 논의가 그것이다. 위평량(2005:43)에 의하면 섬진강변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파’가 실현되는데 반해 이 지역에서만 ‘페’가 실현된다. 또 전남과 경남의 접경 지역의 방언 분포 유형을 전남방언 우세형, 경남방언 우세형, 전남방언도 경남방언도 아닌 제3공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위평량(2005)은 ‘페’의 분포나 제3공유형과 같은 전남방언도, 경남방언도 아닌 독자적인 방언형의 출현은 이 지

역이 전이지대라기보다 독자적인 방언권으로 오랫동안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낙동강변 지역과 관련하여 金德鎬 外(2012)에서는 영남 방언이 일정한 방언권을 형성하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낙동강을 중심으로 강좌 및 강우와는 다른, 새로운 等語線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낙동강 연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언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정우락 2014:209에서 재인용). 金德鎬 外(2012)의 논의 또한 강에 인접한 지역이 독자적인 언어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IV. 맺음말

본고는 섬진강변 지역의 방언을 다룬 연구 성과들을 살펴, 전이지대로서의 섬진강변 지역의 방언이 어떠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하였다.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섬진강변 지역의 방언 연구에 있어 연구 과제 및 방향에 대해 제안해 보았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섬진강변 지역의 방언이 전이지대가 보이는 방언적 특질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섬진강 좌우 지역이 강으로 단절된 지역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 많은 지역임을 언어적 특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더해, 섬진강변 지역의 방언을 언어 변화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화자의 언어태도를 파악하여 화자의 언어사용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이를 위해 질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전남과 경남의 언어문화가 교섭되는 지점으로서의 섬진강변이 가지는 독특한 언어문화가 파악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섬진강변 좌우 지역에서 정치·사회문화적으로 교류가 적어지는 현재 시점에 이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과 언어에 관심을 가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가 섬진강변 지역의 언어 및 언어문화를 다층적인 시각

에서 논의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10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강희숙, 「남성 호칭 접미사 ‘-센’의 지리적 분포 및 사용 양상 -섬진강 유역 방언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7, 한민족어문학회, 2017, 43-64쪽.
- 광양시 환경대체과, 『섬진강의 환경』,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1999.
- 기세관, 「광양 방언의 음운론과 형태론」, 『배달말』 35, 배달말학회, 2004, 5-59쪽.
- 金德鎬 外, 「慶北方言の知覺方言學に關する研究」, 『言語文化研究』 20, 日本徳島大學總合科學部, 2012, 117-137쪽.
- 김덕호, 「한국인의 방언 태도에 대한 추이 연구」, 『어문학』 126, 한국어문학회, 2014, 1-36쪽.
- 김봉국, 「경남·전남 접경 지역어의 음운」, 『동남어문논집』 31, 동남어문학회, 2011, 5-25쪽.
- 김재문, 「경남방언과 전남방언과의 방언 경계선상의 음운 고찰」, 『진주문화』 5, 진주교대, 1984, 23-46쪽.
- 김정대, 「음운면에서 본 경남 방언의 구획」, 『인문논총』 13,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97-114쪽.
- 김정대, 「영남권 섬진강변 언어의 문화 공간적 의의」, 『어문론총』 5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31-64쪽.
- 김택구, 『경상남도의 언어지리』, 박이정, 2000.
- 박정수, 『경남 방언 문화 연구』, 한국문화사, 1999.
- 방언연구회, 『방언학사전』, 태학사, 2001.
- 서상준, 「광양 지역의 방언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 13, 호남문화연구소, 1883, 115-170쪽.
- 서주열, 「전남-경남 등어지대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양명희, 「한국인의 언어 의식의 변화」, 『사회언어학』 15-1, 한국사회언어학회, 2007, 107-128쪽.
- 왕한석,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연구: 한국 학계예의 소개와 앞으로의 연구 과제」, 『사회언어학』 18-2, 한국사회언어학회, 2010, 61-78쪽.
- 위평량, 「전남·경남 접경 지역의 언어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위평량, 「섬진강 유역 방언의 성격」, 『배달말』 37, 배달말학회, 2005, 27-47쪽.
-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회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173-213쪽.
- 최명옥, 「경상북도의 방언분화 연구」, 『애산학보』 13, 애산학회, 1992, 53-103쪽.
- 최명옥, 『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1998.
- Fasold, R., The sociolinguistics of society(Oxford, England), Blackwell, 1984.
- Ryan, Ellen Bouchard, et al. An Integrative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Attitudes toward Language Variation. In Ellen Bouchard Ryan, et al(Ed). Attitudes towards Language Variation: Social and Applied Contexts. 1-19. London: Edward Arnold, 1982.
- Saville-Troike, Muriel,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 an introduction. 3rd ed. Blackwell, 2003. (번역서: 왕한석 외 옮김, 『언어와 사회: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입문』, 한국문화사, 2009.)

Abstract

The Performance and Prospect the study of the Dialect of Seomjin Riverside as transitional area

Hong, Mi-ju

This study examines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dialectical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al area of the Seomjin River area. In addition, I would like to discuss the dialectical features of the transitional area of the Seomjin River area and discuss the research tasks and directions in dialect studies of the Seomjin River area.

A detailed analysis of the language of the Seomjin River area has been made through the review of the previous studies, and thus the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of the area can be broadened. However, there were many discussions focusing on the language itself, which identifies dialectical features. Therefore, it is regrettable that there are few discussions related to the speaker who uses the language or the language cultural elements shared by the speaker

Therefore, future studies related to this area will be able to study some of the following, positively accept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First, the aspect of language change according to the temporal flow needs to be described. Second,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language patterns of the speakers living in the area. Thir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hould be introduced to grasp local people's

language use, attitude and evalu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language and language culture unique to Seomjin River area.

key words :

Seomjin River, Seomjin Riverside, transitional area, Hadong Dialect, Gwangyang Dialect, Gurye Dialect

